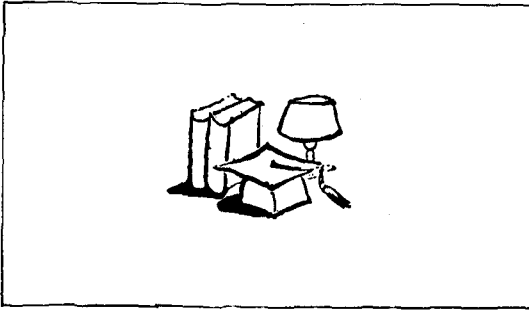


環境專門紙 · 誌를 말한다

- 뚜렷한 性格과 方向정착이 필요 -

(上)



朴 昌 根 <<社>環境教育會 위원장>

글의 힘은 무섭고 強하다!
그래서 “펜은 칼보다 強하다”고 했다.
특히 프랑스의 大文豪 빅토르 위고는 “칼이 만약
붓을 못 죽이면 붓이 칼을 죽일 것이다”라고 붓
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글의 힘이 무섭고 強한 이유는 글은 한 사람
의 머리에서 나오지만 천 사람 아니 몇 억명의
사람의 머리로 들어가기 때문이며, 글 한줄로
인하여 죽은 이를 무덤에서 불러내고, 산 자를
묻을 수도 있고, 또한 小人을 大人으로 만들
고, 大人을 철저히 매장시킬 수도 있기 때문
이다.

특히, 오늘 날과 같이 “정보”가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 모든 면에서 絶對의 必要條件

인 時代에서는 정보의 꽃이라고 할 매스 미디
어 그 중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정보의 集約體
인 新聞이나 雜誌 등의 活字 매체는 個人 뿐만
아니라, 社會와 國家에도 막대한 위력을 발휘
한다.

따라서 그 정보는 精確한 事實과 眞實에 입
각하여야 하며 不義와 타협하지 않는 용기로 무
장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다만 막연한
추측과 사실의 은폐 그리고 허위와 不義에 타
협한 정보라면 그것은 곧 社會戾이며 國家의
장래를 어지럽게하는 害國 행위라고까지 규정
할 수 있다.

즉, 한 개의 單語, 한 줄의 文章일지라도 그
속에는 “精確”, “진실”, “용기”의 힘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1. 우리나라의 環境관계 專門紙·誌

環境問題의 多樣性으로 볼때, 環境관계 專門紙·誌가 아닌 新聞이나 雜誌가 없었으나 여기에서는 環境問題만을 専門적으로 취급하는 新聞과 雜誌만을 大別하면 市販(商業)紙·誌와 團體, 研究所 등의 機關紙·誌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市販 環境紙·誌로는 「週刊 生活環境」紙와 「月刊 公害對策」「月刊 公害安全」誌가 있다. 그리고 機關紙·誌로는 「隔週刊 環境保全協會報」紙와 月刊인 「環境과 公害」「전국 環境관리인회보」 격月刊인 「自然保護」季刊인 「자연보존」誌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사) 야생동물보호협회」「上水道協會」, 「農藥工業協會」등에서도 정기적으로 機關誌를 발행하고 있으며 「한국환경보호협회의회」「한국 공해문제연구소」「환경기사회」 등에서도 부정기적으로 機關誌를 발행(以上の 筆者에게 배달되어 오는 것 외에도 몇 種의 부정기 간행물이 더 있는 것으로 안다)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環境 관계 専門지는 10種이 넘는다. 이는 단일 専門지 발행으로는 가장 많은 수가 된다.

그러나 수에 비해 質의인 면은 몇 種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特性이나 內容을 갖추고 있지 않다. 아니 專門紙·誌가 갖추어야 할 基本的性格이나 方向도 아직 定立되어 있지 못한 상태다.

環境問題를 다루고 있다고 해서 環境專門紙·誌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우긴다면 할말은 없지만 몇 種을 제외한 거의 모든 紙·誌는 그 專門性 하나도 제대로 評價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環境 專門紙·誌의 궁극적인 목적이랄 環境保全에도 이렇다 할 기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發行人이 취미로 新聞과 雜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團體가 돈 쓸 곳이 없어 新聞과 雜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의 우리 専門지는 分명한 方向과 性格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發行人의 주머니는 계속 빌 것이며, 團體의 公金은 낭비되기 때문이다.

編輯者가 無能하다면 스스로 自責하여 물러나던지 아니면 新聞과 雜誌의 ABC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아니 적어도 環境專門紙·誌가 무엇인지 부터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公害를 막는다는 専門지가 또 하나의 活字公害를 조성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2. 環境專門紙·誌를 評한다

우리나라에서 環境 専門지가 처음 발행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1년전인 1975년이었다. 지금의 「環境保全協會」의 前身인 「公害防止協會」의 기관지인 「公害防止協會報」가 그 효시다.

公害라는 말도 생소하던 그때, 「公害防止協會報」는 公害의 危害성과 環境保全의 重要性을 타블로이드版으로 호소했다. 그리고 바로 4×6倍版의 「公害對策」이 倅격적으로 出現했다.

그러나 당시엔 아무도 이 선구적인 活字 매체를 눈여겨 보지 않았다. 時代를 앞서가는 이용기를 사람들은 한심한 “짓” 정도로 평가 했다. 그러나 얼마 후 環境問題는 이나라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 전 분야에 걸쳐 정말 「問題」로 등장 했다. 따라서 環境保全 분야의 團體가 계속 創立되었고 그 기관지가 발행되었으며, 최근 들어 市販用의 專門紙·誌가 본격적으로 出現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環境 문제 専門지중에서

대표적이랄 전문지 몇 種의 方向, 性格, 内容 등을 살펴본다.

(1) 市販用 環境專門紙·誌 週刊 生活環境

〈創刊 1986년 6월·發行 朴來永〉

대판 12면을 每週 월요일字로 발행하고 있는 「週刊 生活環境」은 創刊辭에서 “인간 생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분야의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전문지로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영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길잡이”가 되겠다고 밝혔듯이 生活的 측면에서의 環境問題와 環境的 측면에서의 生活問題를 新聞의 方向, 性格 그리고 内容으로 다루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15호가 발행된 현재까지 「生活環境」紙는 아직 生活環境에 대한 정확한 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다만, 생활의 모든 분야를 환경의 틀에 끼어 맞추려다 보니 무리가 생기고, 환경의 이름으로 생활을 해석하려다 보니 억지가 생기고 있다.

더구나 창간호부터 상당 기간 동안 철도청 관계 소식에 많은 紙面을 할애함으로써, 일부 협구가들에 의해 「生活環境」紙가 아니라 「生活鐵道」紙가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했었다.

솔직히 말해 「生活環境」紙에서는 体制나 編輯, 内容面 등에서 새 新聞다운 신선한 감각을 못느낀다. 좋게 評하면 너무 專門的으로 세련되어 있다고 할까? 낮이 설지 않은 Professional한 얼굴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쁘게 評하면 60年代에 많이 만났던 그렇고 그런 週刊紙 같은 인상을 준다.

즉, 새 新聞다운 새로운 企劃, 새로운 시도의 編輯, 새로운 모험의 内容, 새로운 文体, 文章의 記事가 없다. 너무나 安定된 틀에 갇혀 있는 기존의 企劃과 編輯 그리고 内容과 記事

다.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은 港口에 묶어 놓은 배는 安全하지만 그렇다고 港口에 묶어 놓기 위해 배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生活環境」紙에서 제일 먼저 이해가 안가는 문제는 体制다. 현재 모든 日刊新聞들이 가급적으로 橫書版으로 体制를 혁신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스포츠 문화면 등은 이미 橫書조판으로 성공하고 있다) 生活環境이라는 참신한 것 발을 들고 나온 「生活環境」紙가 왜 진부한(?) 縱書版을 선택했느냐는 것이다.

아마도 橫書版은 大學新聞 같은 분위기(아마추어(?) 같은)를 준다고 해서 日刊紙와 같은 전문성을 보여주기 위해 縱書版을 선택한 모양인데, 한마디로 새 술을 헌 부대에 담은 격이다.

生活環境이라는 참신하고, 진취적인 内容은 마땅히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신선한 体制로 출발해야 옳았다.

그리고 環境專門紙답게(?) 環境庁쪽에 기사 비중을 높이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치더라도 社會의 公器답지 않게 環境庁의 보도 자료를 여과하지도 않고 그대로 大書特筆해 環境庁 P. R紙 냄새를 풍긴다면 5단 정도의 Box로도 충분한 國立環境研究所의 業務 소개를 全面으로 여러 회에 걸쳐 내보내는 태도는 한마디로 環境庁에 대한 지나친 아부라는 빈축을 사게 된다. 특히 거의 每号 1面に 環境庁長의 사신을 모시는 것도 食傷한 일이다.

그동안 筆者가 받아 본 「生活環境」紙에서 筆者가 단편적으로 느낀 「生活環境」紙에 어울리지 않았던 점을 한호 한 件씩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창간호는 앞으로의 「生活環境」紙의 方向을 짐작할 수 없어 지적할 수 없었으며 2호는 구입하지 못했다.

3号 = 〈초대석〉“現代는 電話 번호부 時代” : 기획 의도를 이해 할 수 없었던 기사였다. 단 순한 電話 번호부 얘기였다면, 紙面이 아까웠다.

4号 = 〈모델과 함께〉: 3流 잡지에서나 볼수 있는 기획물로 꼭 美女 사진을 눈요기 감으로 게재하여야 되는지? 生活環境이 Model 소개 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길...

6号 = 〈環境街 산책〉“철도청 人事 정책 비난” : 철도청 人事 문제가 環境 뉴스일수는 없다. 차라 리 철도청 기관지에 독자투고 했어야 옳았을 Gossip이다.

7号 = “농아 돕는” 경찰관 푸로필 : 아직도 이런 流의 기사가 나오다니... 60年代에 많이 써먹은 속칭 “조깅” 기사가 80年代에 출현하다니...

8号 = “佛画에 새紀元 열다” : 어찌자는 소개인지? 보아 주는 것도 정도 문제다. 이럴수는 없다.

9号 = 〈忙中閑〉“漢江은 살았는데” : 忙中閑은 社說과 함께 「生活環境」紙에서는 매우 비중있는 칼럼으로 안다. 남들이 漢江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덩달아 함께 漢江이 살아났다고하는 것은 環境專門紙 잡지 않은 태도다. 보다 신 중을 기해 따져 본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 10号는 입수하지 못했음.

11号 = “地域社會를 가꾼다” : “全自動 보링 기기 展示會 盛況이” 어느 面에서나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님을 自省해야...

12号 = 〈生活의 지혜〉“클리닝과 경영개론” : 1회에서 8회까지 읽었지만 세탁소 사업이 環境 사업인지? 또 세탁소를 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기에 그토록 最長(?) 연재를 감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13号 = 〈忙中閑〉“種豆得豆” : ?

14号 = 5面 全行 8段의 “廢棄物로 土壤을 가꾼다” : 분명한 특정업체의 특정 상품의 廣告

기사인데도 企劃·取材記事인양 記名을 붙여 독자를 방황하게 하고 있다.

15号 = 12面 Box의 “消費패턴 레토르트食品으로” : 新製品을 기사로 소개 하더라도 〈새商品〉정도의 컷은 사용했어야 옳다. 그래야 企劃記事인지 廣告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環境은 그 多樣性으로 하여 生活 전부를 포괄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그런 安易한 것은 아니다.

거듭, 강조하건데 애써 紙面을 채우려고 無理하기 보다는 단 1面짜리 新聞일지라도 살아 숨쉬는 뼈대와 핏줄을 보여주길 바란다.

紙面이나 채우기 위한 式의 긴 論文이나, 술잔이나 대접 받은 듯한 인상을 주는 진부한 탐방 인터뷰記事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筆者는 「週刊 生活環境」의 創刊을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축하한 사람이다. 그래서 每号 신문이 배달 되어 올 때마다, 거의 完讀을 하고 分析, 評價해 왔다.

다음 号는 더 環境의 核을 잡겠지, 다음 号는 더 客觀化 되겠지, 다음 号는 더 記事가 세련되겠지... 그렇게 기대하며 愛讀했다. 그러나 바람직한 變化는 일어나지 않았다.

읽어주어도 좋고, 안 읽어주어도 좋은 新聞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이 公害時代에 모처럼 출발하는 環境專門紙가 험 부대 속에서 뚜렷한 性格도 갖추지 못하고, 港口에 간혀 方向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아무리 살펴 보아도 紙代나 廣告 수입 가지고는 그 많은 新聞社 食口, 그 많은 新聞面과 部數를 감당해 내기가 힘들 터인데... 그렇다면 環境保全 그 꿈같은 그러나 어쩔수 없는 숭고한 使命感 하나 때문에 어렵게 新聞을 만들어

내고 있는 發行人만 피해를 입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깨끗하게 生活環境 만을 정리해야 나중에 후회와 오명을 남기지 않을 터인데... 이대로라면 生活에서나, 環境에서나, 아니 言論에서도 또 하나의 슬픔이 아닐 수 없다.

하루 속히, 구태의연한 惰性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시적으로는 눈에 설고, 不安해 보이겠지만 과감하게 새로운 시도로 새 新聞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들 環境人의 바램이며, 일반 독자의 요구다.

時代는 變한다. 變하는 時代에 맞게 變하는 것도 늦는데, 時代는 變하건 말건 “나는 나”라고 고집을 부려서는 침몰하고 만다. 아니 變하는 時代보다 앞서 먼저 變하는 용기가 來日의 勝利者가 된다.

먼저, 橫書로 体制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雜多하게 읽는 新聞에서 간단 명료하게 보는 新聞으로 탈바꿈 해야 한다. 題目도 파격적인 신선감을 주어야 되고 되도록 中間題目을 많이 동원해 바쁜 현대인들의 時間을 아껴주어야 한다.

文体는 살아 움직여야 한다. 녀두리 같은 길고, 산만한 文章은 용납되지 않는다. 맺고 끊었다가 다시 맺고, 끊고 맺었다가 다시 끊맺는 그런 記事体여야 한다.

그리고 內容은 쉽게, 常識적으로 찾아서는 안된다. 이 新聞, 저 雜誌에서도 다룰 수 있는 그런 內容 가지고는 죽는다. 감히 생각도 못하는 아니 엄두도 못내는 內容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日刊新聞이, 通信이, 「生活環境」紙에서 파격적인 內容을 잡아 머리로 쓸 수 있기 때문이며, 「生活環境」紙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눈을 높게, 길게, 멀리 보라 生活環境의 素材가 活火山 같이 폭발하고 있다. 이제 「生活

環境」紙가 현부대에서, 安全한 港口에서 벗어나 國內외의 폭 넓고 참신한 環境時事에 눈을 돌려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生活環境」紙는 이나라 環境分野에서는 唯一無二한 市販環境 專門週刊紙로 環境人의 자랑이며 希望이기 때문이다.

아니, 더 나아가 來日의 生活環境은 오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個人의 身邊이나, 雜多한 家事問題 그리고 社會의 日常이 아니고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고, 나라다운 나라를 키우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 다음 호에는 「月刊 公害對策」과 「月刊 公害安全」 그리고 機關紙·誌에 대한 分析·評價에 대한 칼럼 이 계속 연재됩니다.

